P23

만성알코올 섭취에 동반된 저칼륨성 신병증 1예

경북의대 내과, 해부병리과†

권태환*, 김준홍, 조 성, 방종호, 김용림, 조동규, 곽정식†

지속적인 저칼륨혈증이 신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뇨농축능 장애, 신 암모니아 생성의 증가, 중탄산염 재흡수의 증가 및 나트륨 재흡수의 변화등이 있으며 조직학적인 변화로는 세뇨관의 공포(vacuole)형성, 세뇨간질의 섬유화, 세뇨관 위축 및 수질 낭(cyst)형성 등이 있다. 이 같은 변화들은 적절한 칼륨 보충으로 대부분 회복되나, 심한 저칼륨혈증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한편 만성 알코올 섭취 또한 저인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 저칼륨혈증과 같은 다양한 전해질 이상 및 대사성 산증 등의 산-염기 평형의 이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만성 알코올섭취와 동반된 저칼륨성 신병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2세 된 남자 환자로 내원전 7개월동안의 전신쇠약감, 다뇨증, 다갈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술은 매일 소주 1병씩 약 40년 동안 마셔 왔으며, 내원 12년 전 폐결핵으로 진단 받고 1년간 치료한 병력이 있었고 특이한 가족력은 없었다. 이학적 소견상 혈압은 130/75mmHg, 맥박은 91회/분, 체온은 37°C, 호흡은 20회/분이었으며 만성 병색을 보였으며 신경학적 소견으로 사지부전마비와 양하지에 지각이상이 관찰되었다. 검사실 소견상 말초 혈액은 혈색소 7.2g/dl, 백혈구6,400/μL, 혈소판 203,000/μL이었고, 소변 검사상 SG 1.010, pH 5.5, 당 0.25g/dl, 단백 100mg/dl이었으며, 24시간 뇨검사상 요량은 4,000ml, Na 58mEq, K 19.8mEq, Osmolality 167mOsm/L, 총단백은 150mg이었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7.65ml/min이었다. 생화학 검사상 총단백 6.1g/dl, 알부민 2.7 g/dl, AST 148 U/L, ALT 78 U/L, BUN 15.7 mmol/L, Creatinine 546 μmol/L, Na 140 mEq/L, K 1.7 mEq/L, Ca 8.8 mg/dl, P 2.1 mg/dl, Mg 1.9 mg/dl, Cl 125 mmol/L, FBS 69mg/dl, 2PPBS 140mg/dl, Iron 54μg/dl, TIBC 153μg/dl, 앙와위에서 측정한 PRA/Aldosterone은 0.44ng/ml/hr(0.2-2.8)/20.6pg/ml(10-160)이었다. B형 간염 표식자는 HBsAg(-), Anti-HBsAb(-), Anti-HBcAb(+)이었으며 동맥혈 가스 소견은 pH 7.386, PaCO2 29.4 mmHg, PaO2 86.4mmHg, HCO3 17.7 mmol/L이었다. 신 초음파 검사상 크기는 정상이었고 신 음영도는 증가되어 있었다. 입원 4일째 신 조직 생검을 시행하여 저칼륨성 신병증을 진단하였고, 칼륨 보충 후 상기 증상이 호전되었다.

P24

흉부 사진상 다발성 종괴양 폐음영을 보인 Legionnaires' disease 2예

고려의대 내과, 임상병리과*

조 상 경, 김 난 희, 권 영 주, 표 희 경, 김 형 규, 심 재 정,
정 희 진, 김 우 주, 김 민 자, 박 승 철, 이 창 규*.

1976 년, 필라델피아에서 집단적인 폐렴발생을 계기로 밝혀진 레지오넬라는 그람 음성 효기성 간균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오염된 냉각탑을 통해서 전파되고 주로 다발적으로 발생하나, 드물게는 산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진단이 늦은 경우에는 치명적일수 있으므로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저자들은 면역 억제요법중인 전신성 홍반성 낭창 환자에서 5월과 10월에 각각 산발적으로 발생한, 흉부 사진상 양폐야에 다발성 종괴양 폐음영을 보인, 비전형적인 레지오넬로시스 두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 :

4년전 전신성 홍반성 낭창 (WHO class IV) 으로 진단받은 19세 여자환자로 경구 prednisolone 및 cyclophosphamide 충격요법중, 갑자기 마른 기침, 고열및 흉통이 나타나, 촬영한 흉부 사진상 우하엽과 좌상엽에 급격히 진행하는 다발성 종괴양 폐음영 보였다. 증세 3일째에 경피적 종괴 흡인 천자술을 시행하여 천자액 그람염색상, 가는 그람 음성 간균이 보여 Roxithromycin 경구투여 시작하였고, 그후 Legionella pneumophila가 배양 되었으며, 혈청검사상 2주만에 Legionella 항체가가 4배 상승되는 소견 보였고, 전신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증례 2 :

1개월전 전신성 홍반성 낭창 (WHO clsaa II) 으로 진단받은 47세 여자환자로 경구 prednisolone 유지요법중, 3일간의 고열, 화농성 객담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흉부 사진상 우상엽과 좌하엽에 급속히 진행하는, 상기 환자와 유사한 폐음영을 보였으며, Roxithromycin 경구투여 시작하였고, 경피적 흡인 천자술로 그람 음성 간균을 확인하였다. 이후 Legionella pneumophila 배양되었으며, 혈청검사상 1주만에 Legionella 항체가 음성에서 1 : 640 으로 증가하였으나 Roxithromycin 및 Clarithromycin 경구투여에 증세 호전되지 않아 Doxycyclin 정주후에 전신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Legionnaires' disease 의 양상이 매우 다양할수 있으며, 기타 여러 폐렴과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므로, 이들 환자군에서 경피적 폐흡인 천자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빠른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